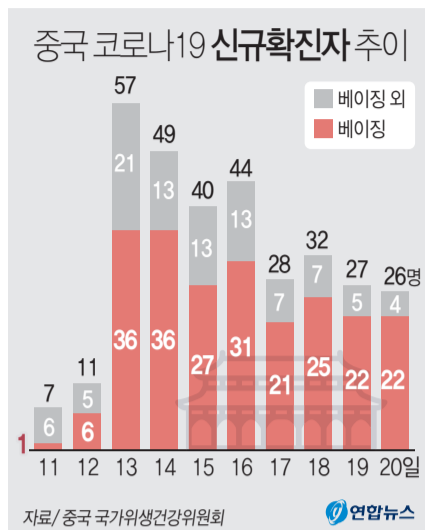


베이징 다시 덮친 코로나... 다시 멀어진 韓-中 하늘길

베이징 집단 감염 10일째 이어져
도매 시장 등 市 전역에 감염 확산
정상화 기대했던 항공업계 실망감
중국 노선 재개 계획 잇따라 무산

중국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집단
감염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, 다시 한
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좁아지는
모양새다.

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
징에서는 줄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
감염증(코로나19)의 확진자 수가 다시
급증하고 있다. 지난 11일부터 베이징
시 평타이 구의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
신파디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시 전역
에 이 같은 감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



것이다.

이에 따라 집단 감염의 양상이 10일
째 지속하면서,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
수 22명을 비롯해 누적 확진자 수는 총

227명을 기록했다. 베이징시는 앞서 지
난 19일 다싱구 시흥면진을 고위험 지
역으로 지정하고, 시청구와 다싱구 각
각 1곳을 중위험 지역에 추가하기도 했
다.

이 같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
집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
고 있다. 한 때 중국 내 확진자 수가 줄
면서,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
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
가 높았기 때문이다.

실제 지난달 21일 중국서 양회가 열
렸던 당시,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해
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하던 '1사 1
노선' 규제를 점차 해제하는 조치를 할
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. 이미 한·중
간 주요 기업 인력들의 파견을 돕는 '기
업인 신속 통로 제도'는 시행되고 있어,

국적 항공사들은 이달부터 중국 노선의
재개를 계획하 바 있다.

대한항공은 지난달 1사 1노선 규제에
따라 기존 선양 노선에서, 베이징·상하
이 푸둥 등 6개 노선의 추가 운항 재개
를 밝혔고, 아시아나항공도 창춘 노선
과 함께 베이징·광저우 등 11곳의 운항
재개로 수익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었
다.

그러나 각 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
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달 세웠던 중국
노선의 운항 재개 계획이 무산됐으며,
일단 내달까지도 비운항 조치된 상태
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 현재
중국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제주항
공(웨이하이)뿐이다.

업계 한 관계자는 "지금은 중국 쪽에
서 제한이 있어 못 띄우는 상황인 것"이

라며 "6월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
따로 해제하지 않은 상태지만, 언제 상
황이 나아질지 모르니 우선 바로 띄울
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
서, 일부 국제선의 운항 재개로 이 같은
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
타고 있다.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
운항을 중단했던 미국 델러스와 오스트
리아 빈 노선의 운항을 내달부터 재개
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또한 미국 로
스앤젤레스와 프랑스 파리, 영국 런던
등 미국·유럽 노선의 운항 횟수는 이달
보다 늘릴 예정이다.

아시아나항공도 인천-오사카 노선
을 내달부터 주 3회 운항하고, 7월 말부
터는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
다. /김수지 기자 sjkim2935@metroseoul.co.kr

삼성 주도 'HDR10+' 회원사 100개 돌파

퀄컴·아마존비디오 등 참여

차세대 화질 기술인 'HDR10+' 동참
회사가 100개를 넘어섰다.

HDR10+는 TV나 모바일 등 디스플
레이 기기에서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
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
고 정확한 색 표현을 구현하는 고화질
영상 표준 기술이다.

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
2018년 HDR10+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

해 'HDR10+ 테크놀로지(HDR10+ Te
chnology LLC)'라는 합작회사를 설립
했다. 파나소닉·20세기폭스사와 함께
다. HDR10+ 인증·로고 프로그램 운영
과 기술지원을 이어가고 있다.

HDR10+ 회원사는 현재 103개다. T
V·디스플레이 업체 16개, SoC 제조사
21개, 콘텐츠 제작사 20개, 소프트웨어
개발사 32개와 주변기기 제조사 14개
등이다.

특히 퀄컴·브로드컴·ARM·아마존

비디오·라쿠텐·20세기 폭스·파나소닉·
필립스·TCL·하이센스 등 업체를 대표
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증 프로그램에
대거 참여해 HDR10+ 생태계를 빠르게
확장하고 있다.

현재 HDR10+ 인증 제품은 TV 965
개, 모바일 기기 48개, 블루레이 기기 9
개 등 총 1000개에 달한다. 콘텐츠 수도
늘고 있어 홈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
에서 시너지를 확대할 전망이다.

/김재용 기자 juk@

'창립 58주년'... 코트라, 언택트 기념식

국내외 2000명 임직원과 영상 시청

KOTRA(코트라)가 온라인으로 창
립기념식을 개최했다. 코트라 임직원
2000여명은 19일 국내·외에서 사내 인
트라넷을 통해 창립기념 영상을 시청했
다.

코트라는 21일로 선여뒀들을 맞았으
며 이번 기념식은 열린 소통을 테마로
구성됐다. 직원들의 릴레이 축하 메시

지, 코트라를 바꾸는 58가지 아이디어
공모전, 국내·외 재택근무 일상을 공유
하는 방구석 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가
펼쳐졌다. 커피와 스낵 푸드트럭도 설
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
소상공인 지원 움직임에 동참했다.

코트라는 1962년 설립 이후, 58년 동
안 국가 무역·투자 진흥기관으로서 여
러 역할을 수행해왔다. 해외진출, 투자
유치, 정부간 거래, 해외 취·창업, 경제

외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능이 확
대됐다. 최근에는 비대면 화상상담, 온
라인 전시회, 긴급 지사화 등을 통해 우
리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뚫기
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.

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"코로나19로
오프라인 행사를 열기 어렵지만 전세계
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자
언택트 형태로 기념식을 진행했다"며
"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소통을 시도
해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
활성화하겠다"고 밝혔다.

/양성운 기자

"문 열어줘유"... LG 디오스 냉장고, 백종원과 광고

음성인식 기능 유쾌하게 소개

방송인 백종원이 LG전자 디오스 얼
음정수기냉장고의 편리한 기능을 직접
소개했다.

LG전자는 20일 백종원을 주인공으로
한 새 광고를 방송했다고 21일 밝혔다.

광고는 백종원의 새 예능프로그램
'백파더: 요리를 멈추지 마!' 첫 방송에
서 1부가 끝난 후 방영됐다. 이 프로그
램에서 백종원과 함께 진행을 맡은 방
송인 양세형도 함께 출연했다.

광고는 15초 분량으로, 음성만으로
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2020년형 LG



LG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광고 영상. /LG전자

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재미있는
상황극으로 소개한다.

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있어서 냉
장고 문을 몇 열겠다는 양세형에, 백종

원이 "이 냉장고 안 써봤지? 요새는 손
이 필요없어"라고 알려주며 "하이 열
지!"라고 부르는 것. 냉장고는 "문 열어
줘유"라는 특유의 말투를 듣고 자동으
로 문을 열어준다. 양세형은 감탄하고,
백종원이 "봤지? 끝내주지?"라며 웃으
며 마무리된다.

이번 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진
이 등장해 마치 방송의 일부인 것 같은
느낌을 주는 분리편성광고(PCM)로 제
작됐다. 백종원과 양세형은 광고 출연
료를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. 앞으로도
이같은 형식의 '착한 광고'를 이어나갈
예정이다.

/김재용 기자



20일 태국에서는 현지법인 임직원들이 함께 태국군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청소 및 주변 정화활동
을 펼쳤다.

포스코 임직원, 지구촌 곳곳서 '재능기부'

'글로벌 모범시민 워크' 진행

포스코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
제를 활성화하고, 6·25전쟁 70주년을
기념해 '힘내라 우리 마을&우리 영웅
들을 추모하며(Cheer Up My Town
& Remember Our Heroes)'를 테마로
'글로벌 모범시민 워크'를 실시한다.

'글로벌 모범시민 워크'는 포스코그
룹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
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, 더
나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특별
봉사 주간으로 전 세계 포스코그룹 임
직원이 참여한다.

포스코가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
'글로벌 볼런티어 워크'가 올해부터 글
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자발
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기업시민
경영이념을 연계해 '글로벌 모범시민
워크'로 새롭게 출발한다.

'글로벌 모범시민 워크'는 지난 19일
부터 오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, 코
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
수하면서 개개인이 가진 기술, 특기, 전
문지식 등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
면, 언택트 봉사활동을 펼친다.

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
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포스코
그룹의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
그리고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골목상권
을 살리기 위한 각종 소비촉진 캠페인
을 펼치며, 해당지역의 농촌마을을 찾
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역활동과 함께
마을 담장 벽화그리기, 농기계 수리작
업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



20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광양시 진상면
청도마을을 찾아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
활동을 펼쳤다.

또 중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해외
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
현지인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감염
방지 교육, 생필품 지원을 위한 무료마
켓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.

6·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
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
표하는 다채로운 활동들도 진행될 예정
이다. 포항에서는 호국보훈 기념장소인
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조경 및 환
경미화봉사활동을 펼치고, 태국에서는
현지법인 임직원들이 함께 태국군 한국
전쟁 참전 기념관에 영상 시청용 TV를
기증하고, 식목, 대청소 등 환경정화 활
동도 실시한다.

특히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포항과
광양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6.25 참
전용사가정 40세대를 선발하여 주거환
경개선을 지원한다. 이번 지원활동은
도배, 전기수리 등 포스코 재능봉사단
이 직접 참여하는 집고쳐주기 사업의
 일환으로 6월 20일 광양지역 4세대를 시
작으로 10월까지 40세대를 완료할 예정
이다.

/양성운 기자 ysw@